

보도일시 (인터넷) 2026. 6. 9.(화) 11:00
(지면) 2026. 6. 10.(수) 조간

배포 2026. 6. 9.(화) 06:00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전국 현장 홍보 나서

- 6. 10.~6. 30. 전국 152개 수협 위판장 어업인 대상 1:1 집중 안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월 10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현장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시한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과 어선 검사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설명을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어업자원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양호섭 (051-773-5550) |
| | 어선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강은 (051-773-5526) |